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오늘은 교회설립11주년 감사주일

### 추수감사절, 성찬식, 집사·권사 임직식 가져

오늘은 11년 전 큰 파도에 쓰러져 난파한 사람들 같이 암담하고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기도할 처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비전을 허락하셔서 민족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안고 서울교회가 태어난 뜻 깊은 날이다.

이 큰 감사와 축복의 날을 우리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주일 I II III부 예배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갖고 찬양예배시간에는 제7대 집사 13명, 제

6대 권사 37명의 임직식을 갖는 등 성대한 잔치를 준비한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교회의 년수가 더 할수록 더욱 충성하며 맑은 바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 임직하게 되는 집사와 권사 모두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충실히 맺어가도록 기도한다.

## 2003년도 서울교회 섬김위원들

2003년 한 해동안 각 위원회 및 부서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할 2003년 서울교회 섬김위원들이 발표되었다.

이 섬기는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년 교회 조직을 '섬김위원'들로 정하였으며 성도들의 기도와 협조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는 2003년이 되도록 한다.

† 당회 서기: 박철훈 장로

†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예배위원회	성준경	예배부: 성준경 찬양부: 임상현
기획위원회	김광신	기획부: 김광신 인사부: 오정수 홍보부: 노송성 위원: 박철훈
교육위원회	노문환	박철훈 오정수 김세재 이변생
교구위원회	이완형	서기: 정병무 회계: 왕경래
전도위원회	김태기	전도부: 김은태 선교부: 김훈 70인전도대: 김광신
구제위원회	정병무	구제부: 정병무 봉사부: 이상호 경조부: 박두영
재정·관리	오정수	재정부: 오정수 위원: 김영준, 임훈규

† 교회학교

교육부서	부장	남자부감	여자부감
교육1국 (오정수)	유야부	전용순	오영숙
	유치부	남태순	박창휘
	유년부	신용식	최영진
	초등부	오정수	김시환
	어린이 오후예배	조정식	최규초
교육2국 (노문환)	어린이 수요일예배	박두영	이양철
	중등부	노문환	이태원
교육3국 (박철훈)	고등부	오광환	박병수
	대학부	이학주	손태기
	청년부	송인권	최치순
교육4국 (김세재)	신혼가정부	박철훈	이종만
	사랑부	이승우	김현영
	에바디부	홍성주	안인호
교육5국 (이변생)	새가족부	김세재	김종근
	영여성경부	이갑진	김 훈
	30대부	이남성	이영조
	40대부	김인수	손병석
	50대부	황정욱	윤성남
	60대부	김영주	장영필
	70대부	박두영	이재윤
신앙강좌 I	이재원	전수자	
신앙강좌 II	우지원	최정자	

† 부설기관

출판국	노송성
주부대학	이완형
실용경로대학	왕경래
서울성경대학	윤찬오
교회갱신연구원	민순구
비전2020	이변생
상담실	최학인
장학회	전기섭
멀티미디어 봉사단	조철기
차량관리	이복규
식당관리	이계홍 · 이찬오

† 제직회서기: 신용식

† 제직회 회계: 오정수

† 실용권사회장: 전인화

† 권사회 회장: 이영희

† 권사회 부회장: 김정희

† 스테반회 간사: 조정식

† 교구장

교구	교구장	교구	교구장
1교구	이영수	8교구	홍성주
2교구	전기섭	9교구	이관규
3교구	정병무	10교구	이복규
4교구	임훈규	11교구	왕경래
5교구	성준경	12교구	김광신
6교구	노송성	13교구	김세재
7교구	이영기	14교구	오정수

† 찬양대

찬양대	대장	부대장	찬양대	대장	부대장
가브리엘	박두호	김성준 · 이영자	은빛	이용선	원복순
할렐루야	김영준	최영렬 · 황노전	칼렙	이관규	김정희
임마누엘	임상현	김형택 · 인문선	그레이스 앤드 블로이어	김규태	김인숙
베들레헴	민순구	백수남	클로리아	이영자	
호산나	박우옥	이영희(정무균)	필그림	이학주	
시온	이영수	오승민 · 여숙	아멘관현악단	천정화	

###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대회 열린다

인도차이나 복음화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갖고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푸치아, 베트남 5개국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약 470명)들이 태국의 농카이와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26일부터 제3차 인도차이나 한인 선교사 라오스 대회를 개최한다.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를 주강사로 모시고 열리는 이번 선교대회는 지난 ALCOE 대회에 라오스 대표단을 인솔했던 김정인 선교사가 대회장이다.

따라서 우리교회는 오정수, 김태기, 이영기, 왕경래 장로 등이 대회 지원을 위해 동참하며 재정지원도 한다. 우리교회 일행은 선교현장 답사와 앞으로 열릴 김치신학세미나 계획 및 단기선교팀 파송지 물색 등의 임무를 띠고 태국, 라오스, 베트남 삼개국을 방문하고 12월 3일에 귀국한다.



감사절 메시지

# 우리가 부를 감사의 노래



이중윤 목사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 하신 말씀은 헬라어로 복수형으로 되어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교회는 오늘 교회설립 11주년을 맞이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이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삼중 감사가 겹친 날이다. 이때 우리는 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본래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들 불평의 대부분은 소유가 없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남보다 적다는데 있다. 상대적 빈곤감은 우리 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영혼도 파멸케 한다. 이런 자는 받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땅에 묻기 일쑤다. 정직한 자라면 가난해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한다. 11년 전 우리는 맨손 들고 차가운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오늘의 서울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가 더욱 커져야 한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대 받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자신은 천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건국공신이나 개선장군처럼 착각하고 논공행상을 바라는 사고방식이다. 이 같은 생각은 큰 과오를 낳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후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하게된다. 죽어야 하고 저주받아야 할 내가 아니었던가. 벌써 없어져야 할 내 가정, 교회, 국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만큼 성장케 하셨으니 감지덕지 할 뿐이지 천대받았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이다.

우리가 불평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세상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는 굉장한 오만이다. 나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 위에 두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의 처사를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므로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감사하자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니 감사하라

모든 것이 내게 과분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사건으로 변질시켜주며 모든 날들을 찬송의 날로 만들어 주며 내 가서있는 모든 곳을 천국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주여, 범사가 축복이 되도록 범사에 감사케 하소서.

# 주가 친히 세운 교회

## 서울교회 設立 11週年 記念 祝辭



강병만 목사(청담교회 담임목사)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 시대를 이끌도록 섭리하십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이사야, 요나, 스룹바벨, 에스라 등 또 종교개혁 당시에는 요한 칼빈을 사용하셨고, 영국을 위해서는 요한 웨슬레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를 설립 하시는데에도, 특별한 시대를 위하여,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서 초대 기독교를 이끌어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최초의 교회인 솔내 교회, 장대현 교회, 그리고 서울의 새문안 교회, 해방 이후 6.25를 거치면서 영락교회 등등은 그 시대에 필요한 교회이기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섭리요, 한국의 성도들을 사랑하시

는 주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교회를 서울에, 그리고 강남에, 세우도록 허락하시고 설립케 하셔서 11년 동안 돌보시며, 큰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신 것은 각별하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그리고 이 시대의 좌표가 되는 교회로 백하셨기에 이제까지 돌보셨으며, 또한 앞으로도 돌보시는 중에 그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교회로 우뚝 서 있는 서울교회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의 고귀한 뜻을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설립 11주년 맞이하는 서울교회와 이종운 목사님, 당회원, 온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 열한줄 감사의 왕송

김형택 집사(12교구)

주님의 뜻 바로 받들고자 겨자씨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행려의 동지에서 시린 입김 모아  
하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만 하늘이 다가와 문을 열고  
대치 반석 위에 시온의 빛을 부렸습니다.

소망은 설계되고  
믿음은 벽돌 되고 실상되어  
사랑의 성전으로 우뚝 섰습니다.

사랑의 예랑 저 위의 전능자의 손길을  
현실로 보았습니다.

성숙한 열 한 살의 청년 서울교회여  
일어나 비추라

유랑 길에 굶주린 양들이 우리를 찾아  
푸른 초장에 살지어 기뻐하고  
목자는 잠시 지팡이를 내리고  
새끼 양의 발바닥을 돌보게 하소서

주 음성 세계에 울리고 복된 동포들을  
사랑의 복음으로 감싸안게 하소서  
양들이 가뭇하는 교회들의 갈래벽을 거두고  
예수 이름 하나로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사랑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무심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미운 자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함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 열 한번 째 고갯길에서

김광신 장로(12교구)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에는 앞뒤를 가릴 겨를이 없었다. 흥분과 열정과 감동이 우리 모두를 올라가게 했고 언제 넘었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었다.

서로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였고 겁이 없고 돈이 없고 도울 자 없어도 근심걱정이 안되었다. 그냥 좋았고 기뻛고 아름다웠다. 초대교회의 열정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천국의 전주곡이었다. 그 힘으로 두 번째 고개를 향할 수 있었고 모두가 끈끈이처럼 하나되고 뭉쳐서 겁도 없이 대항행사를 치러갔다.

'목회자 세미나와 '김치 세미나'를 감행하였고 전 교인이 참석하는 '한가족 한마음 축제'와 '성탄절 행사' 그리고 '전 가족 여름수련회'를 강행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놀라게 되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도가 그렇게 긴장 속에 계속되더니 마침내 대치동에 대지를 마련하고 세

배당을 완공하여 입당예배까지 드렸으니 그것이 아홉 고개를 넘을 때였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숨차고 힘들고 괴롭다고 치지는 사람이 있을까봐 선두에서 서신 이종운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전천후 방어작전, 옹호작전, 격려작전이 담긴 홍해작전을 해마다 감행하였더니 고개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자랑스럽게도 더 높은 고갯길에 올라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니 이제는 밑에 있는 사람들, 교회들, 세상이 보이고 그들에게도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되었다. 우리보다 못한 곳에 관심을 가지는 축복을 주시어 몇 해 전부터 농어촌 100교회 지원하는 적은 일까지 맡게 되었으니 감사할 것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제 열 한번 째 고갯길에서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음이 더 큰 책임과 의무의 위치임을 깨달아야겠다.



집사 임직을 받으며  
아인선 집사(3교구)

모든 것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자격이 없는 저를 서울교회 안수집사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촌 출신인 저는 오늘날까지 지내오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좋은 직장과 가정을 주시고 자녀의 복도 허락하시어 IMF 하루 전 시작한 개인 병원도 계획대로 개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저는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오는 줄 생각했지만 지난 수십 년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준의 신앙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하여 왔지만 교회의 뜰만 밟고 가는 수준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신 말씀대로 듣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면서 또 교회 봉사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므로 병이 나은 것처럼 54년 된 병자 같은 저에게 예수님은

벌써부터 네가 변화 받고자 하느냐 물으셨건만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지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이었으며 믿음이 연약한 것임을 알고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순종하는 생활할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충성된 일꾼되어  
박정섭 (떡떡 권사)

해마다 1월을 맞이 할 때의 각오와 열말이 가까워진 때의 느낌은 사뭇 아쉽고 후회와 반성의 시간임을 알게 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어 왔는지, 가시떨기 나무만 심었는지,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게 했는지, 무성한 잡초만 심었던 적은 없었는지,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영접한지 40여 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 몰래 친구 따라 하나님 만나러 갈 때의 그 설레임과 기쁨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4년 전 서울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갈등과 아픔에 시름하던 영혼을 맑은 시냇가로 향하게 하였고, 앞이 안 보이는 어려움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갈을 길 없는 사랑에 충성하고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려 6개월간의 새벽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콩나물 통의 콩은 물이 그대로 다 빠져 나간 것 같지만 콩나물은 쭈욱 쭈욱 잘 자라듯 나의 믿음도 빠르게 자라 교회의 몸 된 사명 감당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배우고 기도하며 공부할 때, 시험을 걱정하던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했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한 쓸만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 드립니다. 좋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과 시간 시간 목사님들의 말씀은 부족하지만 한 믿음과 내 놓을 것 없는 부끄러운 마음에 화살이 되어 눈물로 회개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외된 곳, 마음이 아픈 사람, 위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 지나간 날 보다 남은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과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선배 권사님들을 따르며 배우며 주님께 칭찬 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살림의 상도들

## 경로대학을 마치고

서귀용 성도(8교구)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경로대학을 수료하는 자리에 서며 그동안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교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강사님의 강의를 들을 때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말씀을 들었고 체조와 에어로빅 시간에는 불편한 몸이었을지언정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며 모든 이들이 웃고 즐기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는 관절염과 노인 건강에 주의할 점 등을 배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장년부 성경 공부의 기쁨

이미경 성도(7교구)

기쁨 충만함을 감사하여 이 글을 씁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수년이 지나 이제 장년이라는 나이에 "공부(학습)한다는 것은 그렇게 익숙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믿음 생활로는 장년이 아닌 유아와 같은 존재이지만 장년부에서 성경공부하며 받은 감사와 기쁨이 일년 내내 끊이지 않습니다.

평소 집에서의 공부가 국어문장을 읽고 수학문제집을 풀고 사회 과학 법칙을 외우기에 바쁜 학습이었다면 장년부 성경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공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하는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장년부 성경공부는 1부 예배를 마치고 난 후 3층과 4층에서 30여분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일날 30여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생활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30대 5반의 선생님들이 집사님은 우리 반원들이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꼭 예습

니다. 아침에 등교하여 서로 손잡고 인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교를 나눌 수 있었고 성심으로 찬양을 드리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강의 시간에는 감사의 말씀을 섬기며 가슴속 깊이 주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저희의 식사준비를 위해 봉사해주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기도와 말씀 모든 아낌없는 정성으로 저희들을 지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목사님, 장로님, 지도 선생님의 수고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깃들고 2003년에는 더욱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을 하여서 모두가 공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선생님은 철저한 학습준비를 하여 그 날의 교재 내용과 성경말씀과의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 10월 한달 간에는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을 선정해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반은 유아부 학부모들이 많다보니 간혹 출석률이 저조해 가르치는 선생님도 당황하게도 하지만 제게 있어서 장년부 성경공부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뿐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아직 모르시는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면 마구 자랑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안달을 할 정도입니다.

저의 요즘은 기도는 깊이 있고 올바른 성경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교회 김장한다

27(수)~28(목)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고 있는 이때 전국은 김장철에 접어들다. 우리교회도 겨울을 나기 위해 오는 27일과 28일 양일 동안 8층 식당에서 김장을 하여 담기로 하였다. 김장은 노동집약형 가사로 많은 돕는 손길을 필요로 한다.

많은 여전도회원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여 교회살림이 겨울을 지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를 당부한다.

### ◆ 금주의 성구 ◆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요 5:8-9)  
Then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At once the man was cured; he picked up his mat and walked.(John 5:8-9)

### ◆ 금주의 식사 ◆

†† 추수감사 · 교회설립 · 집사 · 권사 임직 감사주일 ††

- 과일제공: 박철훈 장로 가정
- 식사제공: 오정수 장로 가정
- 떡제공: 이영기 장로 가정

## 살림 경로대학 학우들이여

김명숙 권사

서산의 해는 저물어 가는데 인생의 마지막 차를 탄 우리는 갈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그리워 빛을 찾아 헤매다가 나는 찾았네

영혼의 안식을 주는 서울 살림 경로대학을 의로운 인생 길 홀로 거니는 백발의 길손들이여

이제 살림 경로대학의 학우 되어서 손에 손잡고 희망의 나라로 달려 가보세

경로대학 학우들이여 지나온 인생 길을 뒤돌아볼 때 일장춘몽 같은 허무함도 아스라이 공허함도 아스라이 시간은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길 지난날에 연연한들 그 무엇하리오

이제 우리 빛 되신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의 품안에서 안식을 얻어 지치고 지친 영육에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힘차게 전진하세

그대들의 앞길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고 소망의 나라로 달려 가보세 이 몸의 소망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5일(월) 장로교 신학회 제1차 학술발표회를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연다. 이날 이 목사는 기조연설을 한다.
- 박철훈 장로는 서울 강남교회 회계로 오정수 장로는 재정부장으로 각각 선임되었다.
- 이사: 채덕희 권사 의정부 신곡동 주공apt 913-301 031-853-2608  
조성엽 집사 전완순 권사 노원구 상계동 상계현대 1차apt 102-607 938-1935
- 개업: 탁영한 성도(3교구) 스튜디오 택스 개업 573-4290
- 득남: 최정필 성도 홍지민 성도 가정 11월20일 득남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감사하는 성도 · 성숙한 교회 되도록
2.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대회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연말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